

## 대한민국 미래교육전략 읽어보기

### Reading the Future Education Strategy in Korea

이지혜(Lee, JiHye)\*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2017). **대한민국 국가미래교육전략**. 김영사.

세계는 뉴노멀(New Normal)이라고 불리는 저성장 경제시대에 혁신적인 첨단기술의 발전이 더해지면서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인간적인 삶에 대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분야에 대한 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교육분야에 관심을 둔 연구자로서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에서 펴낸 대한민국 국가미래교육전략이라는 책의 제목은 늘 궁금하던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KAIST 정재승 교수에 따르면 미래시대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 직관적·예술적이고, 자기감정을 제어하며, 상상력과 공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뇌의 역할이 중요하고, 좌뇌와 우뇌를 고루 잘 사용하는 전뇌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리더로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온다고 한다(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2017, p. 21).

다시 말해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의 속성은 남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수용성, 창조성, 융합성, 개방 및 혁신성, 통합성 등이며, 이를 위한 덕목으로 열정, 도전정신, 지혜, 영성, 정의, 공헌, 지혜, 글로벌 의식, 커뮤니케이션 능력 뿐 아니라 글로벌 정보공유 시대에 프라이버시 침해, 감시, 통제라는 문제점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인성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적자원의 속성을 인간의 전인격적 인성과 연관관계가 있는 5가지- 창조적 지성, 바른 세계관, 전면적 인성, 융합적 지식, 글로벌 의식-로 정의하고 있으며(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2017, pp. 26-27),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수용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수용성 교육이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지력, 지식을 내면화할 수 있는 심력,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체력, 에너지를 바르게 분포할 수 있는 자기관리 능력, 에너지를 남과 공유할 수 있는 인간관계 능력, 즉 전인격성의 회복을 통해 인간의 수용성을 높여주는 교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2017, p. 40).

\*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초빙교수, 청주교대 강사

우리나라는 2014년 인성교육진흥법을 세계최초로 통과시킨 이후 지속적으로 이를 위한 변화를 시도 하였으나 이에 대한 교육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인성교육의 특성인 본질성, 유기체성, 변화성, 극복성, 탁월성을 고려하여 인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2017, pp. 46-50), 지난 20년간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의 교육현장에서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한 수용성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교육교과를 소개하였다.

수용성 회복을 위한 교육교과는 앞서 언급된 수용성의 5가지 구성요소인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으로 구분되어 설계되었다.

지력교육교과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 바른 인식의 틀을 가지도록 하며, 심력 교육교과는 반응력을 회복함으로써 지식을 내면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체력 교육교과는 게으름과 탐심을 극복하고 진리를 실행시킬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자기관리 교육교과는 시간, 물질관리 등을 통해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바른 곳에 분포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인간관계 교육교과는 타인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성의 다면성과 유기체성을 고려하여 전면적 인성 교육교과로 설계되었다(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2017, p. 5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본 서평에서 전부 다루기는 어려우나 무용과 연관지을 수 있는 체력 교육교과의 경우, 단순한 맨손체조와 지압으로 구성된 건강관리 방법을 제시한 부분에서 큰 아쉬움이 있었다. 미래교육의 핵심역량을 창조적 지성, 바른 세계관, 전면적 인성, 융합적 의식, 글로벌 의식으로 열거하며 이를 기반으로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수용성 교육이 진행된다고 볼 때 거의 모든 역량이 두뇌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져 미래사회에서 예술교육의 설 자리에 대한 고민을 다시한번 해보게 되었다.

앞서 언급된 수용성의 5가지 구성요소인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 향상을 바탕으로 설계된 미래인재의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수용성 교육은 창조적 지성, 바른 세계관, 전면적 인성, 융합적 지성, 글로벌 의식으로 구성되며 본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2017, pp. 93-120).

첫째, 창조적 지성교육은 문해독서법, 글 분석 및 감상법으로 정보를 입수하고, 정보를 조직하고 의식화·내면화하는 학습을 통해 정보를 고도화시키며, 글쓰기와 그림 표출법, 함수화법을 통해 정보를 표출하는 학문의 9단계로 구성된다.

둘째, 바른 세계관 정립교육은 독서치료를 통해 감정과 사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원리들을 깨닫도록 한다. 독서를 함으로써 그 내용을 객관화하는 동시에 주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상상을 통한 간접경험을 하게 된다.

셋째, 전면적 인성교육은 5차원 인성인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 향상을 위해 인성요소들이 전면적이며 유기체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으로 앞서 언급된 학문의 9단계와 독서치료를 학습시키는 것이다. 136명을 10개월에 걸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사전, 중간, 사후 전인지수를 측정한 결과 실험집단의 사후검사점수가 상당히 높아진 사례를 덧붙여 설명하였다.

넷째, 융합적 의식교육은 융합적 능력 향상을 위해 수학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학과목을 끝까지 학습시키기 위해서 수학학습에 흥미를 주고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수학학습의 목적을 제시하여 지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글로벌 의식교육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것으로 전세계가 단일사회체제로 변모하는 글로벌 시대에 다중언어능력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한국어와 영어의 어순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영어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에서 살펴본 미래인재의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수용성 교육의 5가지 핵심분야 중 창조적 지성교육, 바른 세계관 정립교육, 전면적 인성교육은 독서를 통해 학습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융합적 지식교육은 수학학습을 통해 글로벌 의식교육은 영어학습을 통해 학습되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기존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시되었던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다각도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융합적 의식교육에서 융합인재교육(STEAM)을 예로 들어 교과 간의 융합교육의 필요성을 짧게 언급하였으나, 이를 위한 교육방법으로 효과적인 수학교육을 선택한 것은 매우 편협한 관점이라고 생각된다. 이 책의 저자들이 KAIST 소속 연구자들임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현재 교육분야에서 교과 간의 융합교육이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볼 때 수학교육이 융합적 의식교육의 방법이라는 주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글로벌 의식교육에 대한 교육방법으로 제대로 된 영어교육을 제시한 것 역시 좀 더 광범위한 교육적 시각의 부재가 아쉬운 부분이었다. 의사소통을 위한 외국어 습득은 글로벌 의식교육의 기본적인 요소이며 필수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으나 영어학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글로벌 의식교육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바탕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학습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세계무대에서 다양한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인재들과 소통이 가능한 미래인재 양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책에서는 100세 시대에 맞추어 평생에 걸친 통전적 교육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통전적 평생교육이란 지금까지의 교육은 대학입시나 학교교육의 평가에 필요한 것으로 학교에서 끝나는 내용이 아닌 인생 전체의 영역들과 연결되고 활용될 수 있는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의 교육으로는 학교에서의 영어 성적과 사회에서의 영어 실력이 다를 수 있고, 역사 점수는 높지만 역사의식은 없거나, 수학과 과학 점수는 높지만 비논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길러낼 수 있다고 본다(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2017, pp. 127-129). 따라서 공교육 분야에서의 통전적 교육을 통해 사회 전반에 따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으며, 공교육을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한 교육으로 평가기준의 변화와 미래지향적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한다.

평가기준에 있어 핀란드의 평가방식을 긍정적인 예로 제시하였다. 핀란드에서는 시험성적이 아닌 학생들의 생활태도, 대인관계, 학습능력을 통해 평가를 진행한다. 이는 전인교육의 전형으로 성적에 따른 평가로 인한 열등감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험의 목적 역시 우열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기 보다 부족한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습활동 자체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된다(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2017, pp. 131-132).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세대를 대비하는 교육혁신과 메이커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의 방법으로 인간 고유의 본성 즉 감정, 창의력, 상상력, 지혜, 긍정적 사고 등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메이커 교육을 통해 창조적인 작업을 할 수 있

는 연구자나 개발자를 양성시켜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2017, pp. 137-138).

이 뿐만 아니라 미래의 교육모델로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수용적 교육 운영과 고등교육에서의 전인격적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가정교육에서의 수용성 교육, 군교육, 사회교육 및 시니어 교육을 통해 통전적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세계시민 교육과 통일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미래의 한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부록으로 국내외 수용성 교육적용 결과를 덧붙임으로써 수용성 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늘 뜨거운 비판과 함께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대학입시에 대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다양한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이에 비해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미래를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를 반영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교육분야에서 만큼은 교육에 대한 발전과 개선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바탕으로 확신과 희망을 만날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